

# 한국 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교회 공동체의 과제

## -사회학자가 제안하는 동감(sympathy)의 신학-

윤원근(장신대 사회학)

### I.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치관 혼란의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는 현대성(modernity)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성을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 인간 생명 경시, 물질 만능, 환경 파괴적인 과학,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관시킨다. 사회학자 파슨스는 현대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ideological pessimism)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한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 증상을 드러내는 곳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현대성은 근본적으로 성경적 사고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현대성이 보다 건강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영적인 뿌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시대를 선도하기는 커녕 과거에 얽매어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교회가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를 벗어던지고 한국 사회의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할 것이다. 이 이론적 틀을 필자는 동감의 신학(theology of sympathy)이라고 붙여 보았다.

### II.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와 공동체 이데올로기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성을 친박한 물질문명으로 인한 위기로 규정하고 전통적 정신의 부활을 추구하는 정신 우월주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차이와 다름을 무작정 절대화하는 형이상학적 상대주의이다. 형이상학적 상대주의에는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다.

이들 속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인간의 참된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 공동체 이데올로기이다. 공동체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현대성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사회주의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정신 우월주의가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현대성에 대해 전통적인 공동체를 옹호하기 위한 전략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허무주의는 현대성에 의해 파괴된 전통적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적 비관주의를 유발시키면서 현대화 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치관 혼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성,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상과 감정, 전통과 혁신, 소속과 의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개별 의지의 매몰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고 한다. 공동체 이데올로기는 독일의 지적 전통에서 가장 심오하고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나치즘적 전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전체주의 모두 이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현대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는 고상한 공동체의 이상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권력의 남용과 억압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모든 문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 출현한 현대성은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권력에 대한 환멸이라는 딜레마를 돌파한 역사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화는 서구화가 아니라 자연화(naturalization)이다. 자연화는 인류가 문화 관념에 속박되어 있던 자신의 자연스런 본성을 발견하고 이와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현대성은 서구인이 먼저 제도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서구인의 관념인 것은 아니다. 현대성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 1. 현대성과 균형의 질서 원리

모여 사는 방식의 문제를 사회학에서는 ‘질서의 문제’라고 부른다. 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의 기본 관심사이다.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개체성을 무시하고 사회성(공동체성)만을 일방으로 중요시하는 통일성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회성을 무시하고 개체성만을 일방으로 중요시하는 다양성의 원리이며, 나머지 하나는 개체성과 사회성을 모두 고려하고 조화시키려는 균형의 원리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체적 본성과 사회적 본성을 공정하게 취급하지 못한 채, 통일성의 원리와 다양성의 원리가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면서 양극단 사이를 진동해 왔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새로운 균형의 질서 원리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2. 현대성과 동감의 행위 원리

균형의 질서 원리는 동감의 행위 원리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동감의 행위 원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제시되었다. ‘동감’(sympathy)은 기쁨, 슬픔, 고통, 환희, 분노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열정에 대한 우리의 동포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동감은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이다. 따라서 동감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출발점으로 한다. 동감은 개체성의 소멸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일체감과는 다르다. 그것은 개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감정이다.

스미스는 인간들이 동감하는 행위에 대한 관찰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도덕의 일반 원칙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 모두는 대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그 속의 어떠한 타인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만약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타인들에 우선시킨다면 우리는 분개와 혐오와 저주의 정당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도덕의 일반 원칙을 ‘공정한 중립적 관찰자’라고 불렀다. 스미스는 이러한 도덕의 일반 원칙이 두 종류의 도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정의(justice)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자혜(beneficence)의 도덕이다. ‘정의의 도덕’은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나의 이기심만큼 존중해주어야 하

는 것이고, ‘자혜의 도덕’은 나의 이기심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의의 도덕과 자혜의 도덕은 두 가지 다 인간 사회에 필요하다. 이 둘은 우리 몸의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처럼 긴밀하게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 IV. 성경과 현대성

균형의 질서 원리와 동감의 행위 원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경적 가르침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 1. 성경과 균형의 질서 원리

###### 1) 삼위일체와 균형의 질서 원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은 가장 분명하게 균형의 질서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께서 개별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선악과와 균형의 질서 원리

균형의 질서 원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는 것’은 개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개체성이 다른 사람의 개체성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성이 파괴되고 만다. 사회성이 파괴되면 개체성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체성의 자유로운 향유를 허용하면서도 사회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도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의 일반 원칙은 정의의 도덕과 자혜의 도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에서 주로 강조되는 율법은 정의의 도덕에 가깝고, 신약에서 강조되는 복음이 주로 자혜의 도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의의 도덕은 다시 상벌의 원칙과 교환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자혜의 도덕은 용서의 원칙과 나눔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의 도덕과 자혜의 도덕은 서로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 2. 성경과 동감의 행위 원리

동감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모든 인격적 관계를 꿰뚫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1)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작용 원리로서의 동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한 쪽이 명령, 지배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으며 어떠한 강제나 명령 없이 자발적인 동감에 의해 서로의 생각과 의지를 수행한다.

##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원리로서의 동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동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3)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원리로서의 동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감의 교제는 똑같이 동료 인간들 상호 간의 교제 원리이기도 하다.

## 4)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하나님

인간은 동료 인간의 행동이 공정할수록 더욱 잘 동감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일의 당사자가 되면 공정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편애하는 유혹에 빠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공정한 제 3의 관찰자가 당사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의 편애적인 관점을 견제하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는 것도 우상이 특정한 부류의 인간을 편드는 편애적인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 V. 나오면서 - 교회 공동체의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동감의 원리보다는 반감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심하다. 이런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이데올로기의 과잉을 완화시켜야 한다.

보수주의 교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교회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중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중성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된 특별한 공동체로 정의하고, 교회의 운영원리와 세상의 운영 원리가 다르다고 보는 이원론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거룩한 신주주의 공동체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세상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동체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그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공동체는 외부 세계에 대해 두터운 담을 쌓는 폐쇄적 집단이 된다. 공동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외부를 적대시하는 상징들을 사용하게 된다.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교회의 폐쇄적 성격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원론적 교회관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다른 인간 집단들처럼 인간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거행하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뿐이다. 교회를 자발적 결사체로 보는 관점은 종교개혁 정신 속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다.

칼뱅의 교회론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요소들 중 하나는 불가시적 교회와 많은 위선자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시적 교회를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편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모임에만 적용된다.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간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가시적인 인간 집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

체화시키게 되면 개신교는 항상 개혁하는 자신의 기본 정신을 상실하고 카톨릭처럼 거룩한 계층조직이 되고 만다.

자발적 결사체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결사의 자유와 임의 단체의 증가를 자유를 수호하는데 공헌하는 두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증대시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유대주의 공동체 이데올로기 속에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인데, 문자적 의미에 의하면,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왜 교회는 ‘안으로 불러들여진 무리’가 아니고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일까? 이것은 교회가 가족이든, 혈족이든, 씨족이든, 민족이든, 모든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그것들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는 막힌 담을 헐고 돌을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 사회의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유대주의식의 교만한 자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간들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겸손한 자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교회를 위한 신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한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과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필자는 동감의 신학을 제안하고 싶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허무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성경은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거대담론”이다. 동감의 신학은 성경의 이러한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